

인터뷰- 취임 3년 맞은 김진상 총장

2면에서 계속 →

NCSI 만족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책은 많은데 체감이 적다'고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성원의 체감 만족도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결과에 대해 겸허히 인지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최상위 결과를 받아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높았는데 2020년 이후론 접수가 떨어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NCSI 평가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 혁신과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입학 때보다 졸업 때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총장의 역할은 '과연 지금의 기업과 직업군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까'를 고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구성원의 체감 만족도 회복을 위해선 만족도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기별 조사를 통해 점검할 것이다. 또한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학생 및 구성원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우겠다. 결국 만족도는 정책의 양이 아닌 '내 대학생활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는 유학생이 많은 대학이었는데 최근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유학생 감소 원인은 학생 선발 시



김 총장은 "그동안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 혁신, 연구 혁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탑 티어 대학으로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입학 요건인 토픽 급수를 더 높인 적도 있다.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성취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는 문병원 총장 행정실장의 추가 설명) 코로나 시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유학생 수가 늘었다. 그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학생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우리나라 대학에 데려와서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유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또한 교육과 정착에 더 집중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유학생을 지원하는 별도의 글로벌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남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

인가?

대학은 교육과 연구·봉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것은 교육 혁신이다. 대학은 최종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구도 결국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학 운영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겠다. 동시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 또한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과 융합·국제

화를 본격화하겠다. 아울러 공간, 재정,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통해 미래 대학의 기반도 착실히 완성해가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이 변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시간은 그 기반 위에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다. 구성원들이 동참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안해주면 좋겠다. 분명히 총장이 못 보는 시각이 있을 테니 함께 하면 꿈은 이뤄진다고 확신하고 있다.

카메라로 QR 스캔 → '대학주보' 인스타 팔로우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더 많은 콘텐츠는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